나는 책이라는 불빛을 따라 걸었다

**국어사전을 펼쳤다. [소박-하다: 형용사 1. 꾸밈이나 거짓이 없고 수수하다.]
선한 눈매를 지닌 그와 이토록 닮은 단어가 있을까. 그는 편안하고 다정하며 또한 겸손했다.
번잡하지도 과장되지도 않은 말은 그를 더 강해 보이게 했다. 소박하지만 절대 요약하지 않은 독서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책 이야기는 봄날에 제격이었다.**

글 이정원 **사진** 최충식

강득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만안구)

독서가 알려준 몇 가지

손에 쥔 게 적다고 해서 마음마저 비어있던 건 아니었다. 경기도 안양시 토박이 소년, 강득구 의원은 제 나름의 방법으로 책을 만나온 아이였다. 넉넉지 않은 가정형편에 손쉽게 책을 살 수는 없었지만, 소년에게는 학교 도서관이 있었다. 지금과 견주어보면 부족함 투성이던 그때의 도서관. 그곳에서 친구와 함께 고전과 위인전을 읽으며 전국 백일장을 준비했었다. 독서보다 공부에 더 가까운 시간이었지만, 책이라는 걸 알게 해준 고마운 경험이기도 했다.

"백일장이 뭐라고 초등학교 4학년 무렵부터 전투적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독서가 왜 중요한지도 몰랐고요. 어떻게 읽고 무엇을 생각할지 고민하는 대신 독후감 쓰기 훈련에 더 집중했어요. 그런데 이 책이라는 게 참 희한해서요. 공부하듯이 재미없게 읽었는데도 저한테 뭔가 남겨주더군요. 중학생이 되고는 신문 배달을 시작했어요. 매일 한두 부씩 남은 신문을 읽다 보니 활자매체에 익숙해졌죠. 그 익숙함이 글자를 갈망하게 했고, 자연스레 책을 향한 관심으로 발전했습니다."

학교 도서관과 신문을 통해 책과 가까워지면서 그는 읽기의 즐거움에 물들어갔다. 책이 있는 일상만큼 훌륭한 교육은 없다는 믿음. 책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는 생각. 강득구 의원의 오래된 믿음과 생각은 지난 독서로부터 얻은 깨달음이었다.

'언젠가는 그들의 집 역시 허물어져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들의 육체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저마다 그 차례가 있다. (중략) 그러자 어떤

책들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써나간다.

– 앤 패디먼, 『서재 결혼시키기』

> “
> 아이들이 작은 도서관을 다니면서 책과 가까워지니
> 정서적 따뜻함이 생겼다는 어머니들 말씀에 다행이다 싶었죠.
> 정서적 보금자리가 생겼다는 이야기에 뿌듯하기도 했고요.
> 저는 지금도 바라고 있거든요.
> 어느 지역 어느 사람이든지 자유롭게 도서관에서
>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책 생태계를요.
> ”

소리가 그의 가슴속으로부터 울려 나왔다. 사람보다 더 절실한, 땅에 대한 애착이 부르짖는 소리였다.’

강득구 의원은 어린 시절의 독서를 대표하는 책이 하나 있다고 했다. 미국인이지만 푸른 눈의 중국인이라 불리던 펄 벅의 소설『대지』였다. 빈농에서 대지주가 되는 왕룽과 그의 아내 오란, 세 명의 아들이 그려내는 삶이라는 역사. 험난한 중국 변혁기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왕룽 일가의 이야기는 어린 그에게 낯설지만은 않았다. 오란에게서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펄 벅은 외국인이라는 한계에도 당시 중국의 정치적 사회적 모순과 중국인들의 폭풍 같은 삶을『대지』를 통해 잘 표현해냈죠. 박경리 작가를 떠올릴 만큼이요. 보통 이 소설을 말할 때면 우직한 농부이자, 부에 갇혀 타락한 거부이면서 가족과 땅을 지키려 애쓴 왕룽이 화두가 되곤 하는데요. 저는 오란에게 더 눈길이 갔습니다. 헌신과 희생으로만 채워진 오란의 삶이 늘 고생하셨던 제 어머니 같았거든요. 제가 어릴 적에 본 어머니들은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판자촌도 식모 일도 마다하지 않는 분들이셨어요. 악착같은 그 삶을 밟고 우리가 공부하고 집을 갖고 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란을 향한 안타까움과 씁쓸함이 그만의 마음은 아니었을 것이다. 끝내 병으로 죽음을 맞은 오란을 위해 눈물 흘린 독자가 적지 않았으니. 게다가 펄 벅이 대지를 통해 미국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아 작가로도 한 사람으로도 새 삶을 살게 되지 않았던가. 오란의 비극적 삶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았을 거라 말한다면 과장일까.

책이 있어 즐거운 공간

어린 시절 강득구 의원에게 도서관이 독서의 출발점이었다면, 지금은 꿈의 울타리라 해도 거짓이 아니다. 초등학교 때 시작된 도서관과의 끈끈함은 그의 삶 여기저기에 흔적을 남겨왔다. 결혼 전 아내와 데이트했던 서울 정독도서관은 추억의 공간이 됐다. 주말마다 도서관을 놀이터 삼는 아내와 함께 안양 석수도서관을 찾는 낭만도 있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도서관을 다니던 일상이 멈춘 지금이 아쉽다.

"제가 경기도의원으로 일하던 시절에 사이버도서관 정책 마련과 관련해 러시아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도서관 두 곳을 견학하면서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당시 우리 도서관은 학생들의 학습공간으로 인식돼 있던 반면에요. 러시아 도서관은 책 읽는 노인들로 북적거리더군요. 도서관이 도서관 원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러웠다고 할까요? 러시아 도서관을 보고 나니, 국가 저력은 문화지수와 연결된다는 말이 새삼 떠올랐습니다."

강득구 의원은 그저 부러워만 하고 싶지는 않았다고 했다. 지역마다 소박하지만 유용한 도서관이 들어서길 바랐다. 마을 도서관과 학교 도서관, 지역 대표 도서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도서관 시스템도 고민했었다. 그가 안양시에 처음 만든 작은 도서관은 자신에게도 주민들에게도 도서관의 힘을 증명한 사례로 남아있다.

"아이들이 작은 도서관을 다니면서 책과 가까워지니 정서적 따뜻함이 생겼다는 어머니들 말씀에 다행이다 싶었죠. 정서적 보금자리가 생겼다는 이야기에 뿌듯하기도 했고요. 저는 지금도 바라고 있거든요. 어느 지역 어느 사람이든지 자유롭게 도서관에서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책 생태계를요.

국회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 중 하나도 도서관의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백여 명이 넘는 의원들과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을 발족했어요. 코로나로 잠시 멈춤 중이지만요. 곧 도서관 정책과 예산, 운영 방향 등에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할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교육학계의 고전 『페다고지』가 떠올랐다. 경쟁 위주의 비인간적 교육을 비판하며 희망 교육의 지침서가 됐던 책. 그 역시 대학 시절 이 책을 애써 읽었다고 했다. 어쩐지 『페다고지』에서 말하는 진짜 교육과 그가 만들고 싶다는 책 생태계가 멀어 보이지 않았다.

지식을 나누는 통로

이틀에 한 번꼴. 강득구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열람실의 성실한 이용자다. 자료를 찾고 책을 탐독함으로써 열람실이라는 공간이 지닌 의미를 지켜주고 있다. 그가 지금까지 독서를 게을리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다. 책을 읽는 일이, 책이 있는 곳에 머무르는 순간이 행복하기 때문이다. 눈앞에 놓인 책을 모르는 척하기란

> 저 같은 정치인에게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상상력입니다.
> 이 정책이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 상상할 줄 알아야 하죠. 상상력을 키우는 데는 독서가 제격이고요.

영 성격에 맞지 않는다. 책에 대한 궁금증이 생각지 못한 사건을 일으킨 적도 있었다.

"고등학생 때였어요. 친구 집에 갔더니 친구 누나가 비밀공부 모임을 하고 있더군요. 모임이 끝난 방에서 조세희 작가가 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발견했고요. 책을 펼쳐 보다가 뒷 얘기가 궁금해서 집어 왔는데, 금서인 줄 모르고 학교에 가져간 겁니다. 결국 소지품 검사에 걸려서 선생님께 엄청 혼났죠. 화려한 도시 재개발 뒤에 숨은 소시민들의 아픔을 그린 책이 금서가 되고, 그걸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암울한 시절이었지만 그래서 더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저도 사람들도요."

그는 『씨알의 소리』, 『말』, 『녹색평론』 같은 시대를 향한 비판과 외면당한 진실을 알리려 했던 잡지들에 대한 기억도 끄집어냈다. 어떤 책보다 의미 있던 그 잡지들을 통해 지금의 자신이 됐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

"저 같은 정치인에게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상상력입니다. 이 정책이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상상할 줄 알아야 하죠. 상상력을 키우는 데는 독서가 제격이고요. 제가 올해 초에 2021년 트렌드 관련 책을 읽은 이유도, 트렌드 분석을 통해 흐름을 보는 눈과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책으로 누군가의 지식을 나눠 받은 것처럼요. 저도 교육이나 경제에 대한 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책을 한번 꾸려보고 싶네요."

재작년 직접 발로 뛰어 만든 시민 인터뷰집 『득구있다』로 좋은 반응을 얻었던 강득구 의원. 사람이 곧 한 권의 책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들려줬으니, 이번에도 그 바람이 이뤄졌으면 한다. 누군가 그의 책으로 상상력에 날개를 달게 되거나, 함께 책 생태계를 만들 동지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강득구 국회의원의 '내 곁의 책'

대지

펄 벅 | 길산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조세희 | 이성과힘

페다고지

파울루 프레이리 | 그린비